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1일)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출가, 짧지만 소중한 경험되길

어머니에게 불교 영향을 받아서, 진로와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저마다의 출가 동기는 다르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같다. 조계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 현장. 5박 6일간의 행자생활을 시작하는 청년행자들이 은사스님들로부터 행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아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원적

5월 1일 삼일암서 입적…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선호당에 분향소 마련
5월 5일 오후 2시, 송광사서 영결 · 다비식 봉행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사진〉가 5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송광사는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가 송광사 삼일암에서 5월 1일 오후 8시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원적했다"고 밝혔다.

대종사의 장례는 조계총림장으로 엄수됐다. 분향소는 송광사 선호당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5월 5일 오후 2시에 송광사 승보전 앞에서 엄수하고, 다비는 송광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차주상보〉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현봉 대종사는 1974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75년 구산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백련사, 해인사, 극락암, 봉암사, 수도암, 월명암, 정혜사 칠불사,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91년 조계총림 유나 소임을 맡았고, 1994~2001년 제11·12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2004년 송광사 주지와 정광학원 이사, 2002~2012년 조계종 법규위원. 재심호계위원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92년에 송광사 광원암을 중창해 이곳에서 정진했으며, 2019년 11월 1일 산중총회에서 제7대 방장으로 선출되어 11월 5일에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조계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대종사는 최근까지 보조국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 불사는 물론 보조학술상 제정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아울러 SNS를 통한 포교 활동과 송광사 홍보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송광사 유튜브 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저서로 〈선에서 본 반야심경〉 〈너는 또 다른 나〉 〈운옥재문집〉 〈솔바람 차 향기〉 〈밖에서 찾지말라〉 〈일흔집〉 등을 펴내고, 〈용악집〉 〈구산선문〉 〈수심결〉 등을 편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 열반게

曺溪月落住巖湖
天地暗黑孤鶴聲
空手來去無生路
惺惺寂寂是何物

조계의 달이 주암호에 잠기니
천지가 어두운데 학이 홀로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 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깨어 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색다른 불교 만나는 '캠플스테이'가 뜬다

〈캠핑+템플스테이〉

서산 보원사, '백패킹 캠플스테이' 호평 속 확대

쓰레기 없는 '클린 하이킹' 지향
대웅전 옆 텐트, 보원사지 만끽
참가자 대부분 만족도에 만점 줘
보원사지 활용한 캠핑, 이색 경험
"2030 참가자 많아 포교 긍정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서산 보원사의 '백패킹 캠플스테이'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해 확대 운영된다. 사찰의 시설을 활용한 기존 템플스테이 형식을 벗어나 보다 자연과 깊게 호흡하고 불교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포교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서산 보원사는 현재 5월 25~26일, 6월 8~9일, 6월 20~21일 총 세 차례에 걸친 캠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회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 안팎.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캠플스테이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클린 하이킹'이다. 1일차와 2일차에 모두 포함되며 1일차엔 개심사-백암사지-보원사에 이르는 11.2㎞의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코스를, 2일차엔 보원사-개심사 총 4㎞의 간단한 구간을 걷는다. 하이킹을 하면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1박2일간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뿐만 아니라 캠플스테이에선 △사찰음식 만들기 △연잎차 다도 △숲속 필라테스 △서원탑 만들기 △반딧불이 명상 △폐청바지를 이용한 버들치풍경 만들기 △그림자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웅전 옆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역사문화가 가득한 보원사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지난해 기준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90% 이상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다. 9점을 준 참가자가 손을 꼽을 정도인 데다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준 참가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 회당 적게는 4~5명, 많게는 10여 명이 참가해 자연을 만끽하고 불교문화를 부담 없이 느끼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참가자들은 "스님의 목탁소리에 기상할 수 있는 캠프사이트는 어디에도 없다" "아쉬운 건 1도 없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보낸 힐링 자체였다"고 극찬에 가까운 후기를 남겼다. 공양게의 의미를 알게 된 점, 서원탑 만들기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점, 낯선 사람들과 비슷한 취미로 유대감을 쌓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 참가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캠플스테이 '홈커밍데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플스테이를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했지만 26명이 다시 찾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는 개인 장비를 직접 챙겨서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백패킹에 관심은 있지만 개인 장비가 없는 이들을 위해 장비 대여를 하기로 한 것. 그러자 지난달 모집 공지를 한지 3~4일 만에 25명이 신청해 인터뷰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해야 할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캠플스테이는 새로운 포교방편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임 종무실장은 "참가자 대부분이 비불자다. 종교색보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며 "2일차 일요일 필라테스를 할 때 아빠와 함께 참여한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교회에 가니 이제는 '절에 가자'고 한다는 후문을 전해 들었다. 20~30대 참가자가 많고 가족도 함께할 수 있기에 포교 관점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圓 寂

大韓佛教曹溪宗 曹溪叢林 松廣寺

方丈 南隱堂 玄鋒大宗師 叢林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께서 세연이 다 하시어 **불기 2568(2024)년 5월 1일 (음 3월 23일) 오후 8시** 전남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삼일암에서 법납 50년 세납 75세로 원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도대표 연제 합장

■ 분 향 소 : 전남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선호당
■ 영 결 식 : 불기 2568(2024)년 5월 5일 (음 3월 27일) 오후 2시
※보조국사 종재 행사 관계로 오후 2시에 영결식 봉행
■ 영결식장 : 조계총림 송광사
■ 다 비 장 : 송광사 연화대
■ 문의 및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조화와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총림장 장의위원회